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립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양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추석을 지내는 마음

문 저는 이번에 선원에서 거행하는 추석 합동 천도제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추석과 같은 명절에 지내는 천도제에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참석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천도제를 지내면 후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공덕이 돌아가는지 그 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가르침 주십시오.

답 우리 인생이 끝난데 없이 살아나 가면서 구르는데, 비유하자면 지금 우리는 가지가 많고 이파리가 많고 뿌리가 있습니다. 위로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시고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마음도리를 공부해서 백중에 그 묵은 은혜를 갚는데 팔월 추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뒤를 많이 차려놓아서가 아닙니다. 하다 못해 초 한 자루 켜 놓고 물 한 그릇을 떠놓고 향 한 개비를 피워 놓더라도, 절을 일 배를 올리다 하더라도, 아주 깊은 생각으로 일 배를 올리면서 그 감사함을 생각한다면 조상님의 은혜를 갚고 또 자신들한테도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뚱이만 귀하다고 애를 쓰고 사는데, 심어 놓은 나무가 거꾸만 잘라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데는 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의 어떤 문제를 배척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끌어안는 마음으로,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때로 어떤 집안에서는 흥에 맞아 죽은 분들을 제치고 물에 빠져 죽은 분도 제치고 맞이하는 죽은 사람도 제치는 그런 경우가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무섭게 생각하고 오히려 자기네들을 해친다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되지요. 더 불쌍하게 생각하고 정월에나 백중, 팔월 추석 때 잘 모셔드린다면, 자기 조상이라면 자기네들 뿌리나 똑같은 자기 그분들을 은혜로 생각하고 받들어 모시는 마음을 갖는다면 서로가 서로를 돕게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돌아 나게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모두를 가립니다. 시아버지는 이랬고 시어머니는 이랬고, 뭐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다 갈라놓으니까 갈라놓는 대로 갈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집안이 뭐가 되겠어요. 자손들도 씩 박질이나 하고 나가서 일이나 저지르고 이렇게 하다보면 집안이 편안하지 못한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자식들을 낳아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고 한탄을 하지만, 그거는 한탄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기네들 생각에 의해서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마음으로 짓는 건데 천냥 빛은 못 갚겠습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 얼마든지 자비하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건데도 그걸 못해요.

그래서 추석이 되면 자연스럽게, 물론 하루도 삼천 년 전이나 삼천 년 후나 어떤 하루밖에 더 없지만 추석이다 하면 지수 화풍과 일체 만물과 더불어 같이 감사하고,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게 없는 마음이어야겠지요.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 아니면 안된다” 생각 버려야

착·욕심·아상 세우는 사람에게엔 부처님 법의 문 절대 열리지 않아

이차적으로는 법의 조상이나 육의 조상이나 모든 조상님들과 일체 제불에게 또는 일체 권속 일체 중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마음의 회향을 할 때 한데 합쳐서 회향을 하게 되는 거지요.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 생각을 안해도 생각을 한 게 되고, 생각한 사이 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생각이 안하면 발전이 없어요. 생각을 함으로써 발전이 이루어지고 창조력이 길러지는 거니까 한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추석은 상당히 뜻이 깊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근본이 몸을 형성시킨 거니까 우리가 정신차려서 앞으로 생활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어려운 지경이 많이 닥쳐올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영령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알아두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참나를 탄생시켜서 상봉하는 겁니다. 현재 내가 과거에 살던 나를 발견해서 상봉을 한다면 자유 자재권을 얻어서 자유인으로서 12대 중생을 건진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일체 만물만생들을 다 응신으로서 다루면서 어느 것 하나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또는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는 그런 진리에 관한 것을 섭렵해서 바로 자유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살게 되고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사

는 것 같아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굳이 공부라고 할 것은 없지만, 진심된 마음에서 우려져 나오는 자성을 발견하려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제일 먼저 나로부터 생기는 것을 나에게 다시 놓는다고 할 때에 바깥으로 거슬리는 눈초리나 또는 바깥으로 거슬리게 보이는 거나 거슬리지 않게 보이는 거나 모든 걸 상관 안 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다가오는 대로 무조건 그 자리에 다 내려놓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지금 이런 위치에 있고,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나는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가고 있다는 생각, 어떤 경우에 있어서 난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 난 이렇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병이 생길지를 예측을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놓는다는 거는 그냥 맥없이 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놓으라고 하니깐 맥없이 그냥 놓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급한데 그냥 놓으라고 한다면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 놓는다는 건 대처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대처하기 위해서 놓는 것이지 무덤덤하게 그냥 놓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든 그 자리에 맡겨 놓아야 보이지 않는 데서 대처를 해서 해결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정신계에서 그게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놓을 수 있는 실천을 자꾸자꾸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놓겠다는 생각에도 끄달리지 마시고 안 놓고 있다는 생각에도 끄달리지

않고 동일하며 한마음 그 자체의 현현이라고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습을 통해서 중생을 이끄실 때는 단체의 형식을 띤 일가를 이루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끄시는 방편에 따라 가풍이 다르고, 법맥을 매우 중요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때로는 배타성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법맥을 중시하시는 까닭이 단지 공부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깊은 뜻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모습과 이름에 걸려 있는 마음놀음을 용감히 떨칠 수 있도록 열심히 놓고 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을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정되게 그

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시절에 따라서 말씀하셨지만 시대가 돌아가는 대로 용어가 다르고 말이 다르게 표현이 돼야죠. 예전에는 달구지에 짐을 실어 날렸지만 지금은 사람도 태우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비행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은 똑같으나 이와 같이 사용하는 용어가 바뀌고 말이 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알아서 어떻게 해야만이 완성을 하면서 가집도 잘 이끌어 갈 수 있고 또 조상들도 완성을 시킬 수 있고, 자녀들도 완성된 어른으로 키울 수 있을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거양득이 아니라 삼거양득이죠. 삼거양득이란 거는 삼심이 일심으로 통하고 돌아가니까 전체를 살린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현상세계의 법을 먼저 가르쳤고 그 다음에 무의 세계의 법을 가르쳤어요. 그 사람 인생이 다 가도록 그렇게 했던 말입니다. 무의 법을 먼저 가르쳤고 다음에 무의 법 유의 법을 같이 가르쳤기 때문에 법화경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예전대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이니까 우리는 단 한순간에 동일하게 그냥 하자는 겁니다. 행주좌와를 그냥 하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은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어아가는 세상입니다. 발전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 달린 거지 딴 사람이 하고 가는 거에 기대고 그거를 본 따서 갈게 뭐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빠르면 빠른 대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다르게 말한다고 하지만 옛날에 달구지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도 달구지라고 해야 옳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말씀해 놓으셨을 겁니다.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계율도 방편도 바꾸라고 말입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

그냥 내 마음 나오기 이전과 더불어, 예전에 각을 이룬 선지식들이 말씀하신 대로 손가락 하나 드는 데에 모든 우주가 들린다고 하신 말씀 자체가 그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무의 세계 유의 세계를 다 포함해서 알았기 때문이라고 한생각에 진화해서 창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늘어나는 인구는 또 살지 못하고 껍데기가 없어지죠. 모습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모습이 없어지면 영혼이 살게 되죠. 영혼이 살게 되면 영혼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태어나게 돼 있어도 진짜로 마음공부를 한 사람들은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태어나지 않고 어떤 톨도 자기 몸이 되고 자기 집이 되고 또 어떤 산도 자기 몸이 되고 자기 집이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지로 부어진다 하는 얘입니다.

그냥 내 마음 나오기 이전과 더불어, 예전에 각을 이룬 선지식들이 말씀하신 대로 손가락 하나 드는 데에 모든 우주가 들린다고 하신 말씀 자체가 그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무의 세계 유의 세계를 다 포함해서 알았기 때문이라고 한생각에 진화해서 창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늘어나는 인구는 또 살지 못하고 껍데기가 없어지죠. 모습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모습이 없어지면 영혼이 살게 되죠. 영혼이 살게 되면 영혼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태어나게 돼 있어도 진짜로 마음공부를 한 사람들은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태어나지 않고 어떤 톨도 자기 몸이 되고 자기 집이 되고 또 어떤 산도 자기 몸이 되고 자기 집이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지로 부어진다 하는 얘입니다.

나를 밝히면 조상도 더불어 밝아져

자기 육신이 태어났으면 정신 다시 태어나야 진짜 사람



그림 · 최주현

느냐 하는 차원에 따라서 과거도 현실이고 미래도 현실인 오늘, 영원한 오늘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는 마음이 있고 자식이라는 마음이 있어서, 전기가 가설돼서 불이 들어오듯이 부모라는 마음이 가설돼 있고 자식이라는 마음이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든 자식을 위해서든 더불어 같이 내 육신 안에 생명이란 잔뜩 들어서 더불어 같이 공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밝히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두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고 나를 밝혀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초불재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항상 불을 밝히면서 생활 속에서 재로 삼고 항상 행주좌와 참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가 부처님 법이요, 부처님 법이 우리들의 법이요, 우리들 육신이 바로 부처님의 형상이나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대무변하고 묘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밝혀야만 되겠습니까. 자기가 나온 자리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정신계를 모르기 때문에 통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육신이 태어났으면 정신이 다시 태어나야 진짜 사람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밝히면 자신들도 나가서 어떠한 문제를 저지르거나 하지 않고 또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별의 별 일들도 마음의 불을 밝히고 열심히 마음공부를 한다면, 생활에서 다가오는 모든 경계를 바로 재료로 삼아서 공부한다면, 자신들은 마음이 화해서 바뀌고 바뀌지면서 화하고, 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의식들이 다 착해지고 밝아지고 보살로 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고 간단히 욕을 하고 때리지 않아도 스스로 밝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모조리 다 내려놓아야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놓는 데에 장애물이

패서 놓아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제일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거, 내가 아니라면 이것을 꾸러 나가지 못한다는 그런 망명된 생각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나 자신도 말입니다. 사람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착과 욕심과 애착 또는 내가 안다는 아상을 세우는 사람에게엔 절대로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부처님 법이 얼마나 정확하고 좋은 법인데 그런 법을 그렇게 소홀히 해 가지고 터득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고등동물이면서도 앞으로 비가 올지 또는 태풍이 불어올지, 또는 가정에

말고 그냥 그 자체를 내려놓으세요. 번소에 앉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오로지 그 자리에서 해결한다는 믿음으로 맡겨 놓는다면 얼마 안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또 잘 되는 일은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그래서 어떤 경우이든 간에 얼마나 근본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고, 나라는 것을 손뚱만치도 남기지 않고 송두리째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나가 생사를 갈라놓을 수 있는, 생사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공부라는 것을 진실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끄시는 방편에 대해...

문 스님의 가르침을 서둘러나마 실천해보려 애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놓고 골라다보면 답이 나온다는 가르침이 있지만 성급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나투신 모습, 시대, 장소가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스승

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시절에 따라서 말씀하셨지만 시대가 돌아가는 대로 용어가 다르고 말이 다르게 표현이 돼야죠. 예전에는 달구지에 짐을 실어 날렸지만 지금은 사람도 태우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비행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은 똑같으나 이와 같이 사용하는 용어가 바뀌고 말이 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알아서 어떻게 해야만이 완성을 하면서 가집도 잘 이끌어 갈 수 있고 또 조상들도 완성을 시킬 수 있고, 자녀들도 완성된 어른으로 키울 수 있을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거양득이 아니라 삼거양득이죠. 삼거양득이란 거는 삼심이 일심으로 통하고 돌아가니까 전체를 살린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현상세계의 법을 먼저 가르쳤고 그 다음에 무의 세계의 법을 가르쳤어요. 그 사람 인생이 다 가도록 그렇게 했던 말입니다. 무의 법을 먼저 가르쳤고 다음에 무의 법 유의 법을 같이 가르쳤기 때문에 법화경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예전대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이니까 우리는 단 한순간에 동일하게 그냥 하자는 겁니다. 행주좌와를 그냥 하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은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어아가는 세상입니다. 발전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 달린 거지 딴 사람이 하고 가는 거에 기대고 그거를 본 따서 갈게 뭐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빠르면 빠른 대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다르게 말한다고 하지만 옛날에 달구지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도 달구지라고 해야 옳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말씀해 놓으셨을 겁니다.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계율도 방편도 바꾸라고 말입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

그냥 내 마음 나오기 이전과 더불어, 예전에 각을 이룬 선지식들이 말씀하신 대로 손가락 하나 드는 데에 모든 우주가 들린다고 하신 말씀 자체가 그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무의 세계 유의 세계를 다 포함해서 알았기 때문이라고 한생각에 진화해서 창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늘어나는 인구는 또 살지 못하고 껍데기가 없어지죠. 모습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모습이 없어지면 영혼이 살게 되죠. 영혼이 살게 되면 영혼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태어나게 돼 있어도 진짜로 마음공부를 한 사람들은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태어나지 않고 어떤 톨도 자기 몸이 되고 자기 집이 되고 또 어떤 산도 자기 몸이 되고 자기 집이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지로 부어진다 하는 얘입니다.

그냥 내 마음 나오기 이전과 더불어, 예전에 각을 이룬 선지식들이 말씀하신 대로 손가락 하나 드는 데에 모든 우주가 들린다고 하신 말씀 자체가 그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무의 세계 유의 세계를 다 포함해서 알았기 때문이라고 한생각에 진화해서 창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